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예산 14조 6,738억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010년도 소관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6,434억원(2009년 본 예산 대비 7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하여 304억원 증액 조정한 규모이다.

지난해 국회 2010년도 예산심의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감 규모는 2009년(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1,49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하여 유보된 18개 사업 1,373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비 중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 232억원은 2010년도 집행유보에서 제외했다.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안성마춤'과 '하림삼계탕' 등이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원예농산물 분야의 「안성마춤」을 대통령상인 대상에, 전통식품 분야의 「하림삼계탕」을 국무총리상인 금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하림삼계탕」은 (주)하림에서 삼계탕용으로 개발하여 연간 약 900톤을 생산, 42억원의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회는 농식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오다가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6회째가 된다.

농식품분야 우수 브랜드 선정은 원예 농산물 분야, 전통식품분야의 브랜드를 평가해 16개 내외의 파워브랜드를 선발하며, 대상은 5백만원, 금상 3백만원, 은상 2백만원, 동상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등을 통해 원예농산물 브랜드 57개, 전통식품 브랜드 35개를 추천받았다.

추천 브랜드 중 유통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11명)이 1차 서류평가를 통해 55개 브랜드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전문리서치기관에서 일반소비자, 유통중보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2차 평가인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해 상위 각 20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제품평가, 종합평가 등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의 파워브랜드를 선정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상황별, 기관별 세부조치사항을 정한 'SI 긴급행동지침(SOP)'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SI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S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2009. 9. 18)의 일환으로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SI 긴급방역 조치 시 동 개선사항을 적용하고 현장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SI SOP를 개정 발표했다.

〈AI 긴급행동지침(SOP) 주요 개정사항〉

「AI SOP」 제4장 조류인플루엔자의 표준행동요령 중 '살처분 및 소각 매몰요령' 개정

□ 소각 및 매몰대상

- 살처분 가족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 처리토록 하고, 소각 및 매몰 처리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조토록 함

□ 매몰방법

- 매몰 구덩이의 바닥을 2% 경사지도록 하며,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지 않도록 2중 비닐로 덮고, 바닥 및 벽면은 혼합토로 충분히 도포토록 개선
-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는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 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함.
-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정을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 설치

□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사후관리(3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 (현행) 6개월 이후 수시점검 → (개선) 분기별 점검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는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처리토록 함.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관(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 내어 소독 후 처리함
 - 침출수 양수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폐수처리
- 매몰지 침출수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지 경계외부(5m 내외)의 조사관정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추정 또는 확인된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추가관정 설치 및 조치토록 함.

□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조치(부록 IV. 방역수칙)

- 책임관리자 지정 · 운영 및 매몰지 관리요령 등 보완

노동부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안내서」 발간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농업 분야의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들을 사례 형식으로 소개한 이 책에는 근로자 채용,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해고 등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들을 수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나 휴식·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농업분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이 떨어져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규정들을 업무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규가 되도록 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과 '농업 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 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에는 채용단

계부터 사용계약종료 단계, 나아가 계약종료 이후 단계까지 농업인들이 사업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노동관계법 관련 내용들이 담겨있고, '농업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내용을 소개, 농업분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장,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농업인이 자주 접하는 시·군청, 지역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농림수산물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해 12

월 23일 현재 공통으로 운용중인 축산물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을 식육포장처리장 생산특성에 맞는 선행요건을 개발하여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 고시 제2009-15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은 2009년 2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동 평가기준에는 검사실을 구비하여 자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시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프로그램 관리사항을 축산물 가공업 등 일부업종 평가기준에 추가했으며,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를 표시대상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고시 일부 사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알림마당 → 법령고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검역원에서는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수출 및 자율점검 우수업체 시상식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동물용 의약품 수출우수업체 및 자율점검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동물용의약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금년 처음 시행하는 시상식에서 최우수 수출업체로는 (주)이글

벧(장관상)이, 우수업체(검역원장상)로는 (주)코미팜(수출국상), (주)신일바이오젠(수출품목상), (주)우진비앤지(수출신장상) 및 (주)씨티씨바이오(수출액상) 등 4개 업체가, 특별공로상(검역원장상)에는 (주)고려비엔피와 (주)다원케미칼(한국동물약품협회장상)이 선정되어 상패 및 상금을 수여받았다.

우수업체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수출실적, 전년대비 신장률, 수출국가수 및 수출품목수를 종합하고 품목별국가별 시장개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 확인 후 대상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참고로 2009년 10월 현재 동물용의약품 수출액(원료 포함)은 총 685.3억원(전년 동기대비 52.8%)이다.

또한 같은 날 검역원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09년 자율점검제 결과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시상업체로는 제조부분에서 바이엘코리아(주)와 수입부분에서 인터베트코리아(주)가 최우수업체(장관상)로 선정되었고, 우수업체(검역원장상)로는 (주)고려비엔피, (주)우성양행, (주)포켄스, (주)바이오노트 및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가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을 수여받았다.

한편 검역원에서는 2010년도 자율점검제 우수업체 선발시는 제조·수입과정에서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실적외에도 보관·유통분야 개선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원료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종합적인 품질관리 평가로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축사에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까지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는 축산농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농장주나, 관리인 모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발생원인과 예방방법 등을 소개해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화재는 대부분 전기, 전기배선, 전열기구,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축사에서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 점검과 개, 보수는 전문 업체에 의뢰
- 옥내 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 교체 및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 사용,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주 1회 점검
-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 기구의 먼지 제거 등 청결 유지 및 배전반, 분전반, 전기기계 기구 등은 반드시 접지공사 실시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 사용하는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보온등에 철제 원형망을 설치해 가축이 건드

려 발화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축사 내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
-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 공사를 실시
-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 아울러 보온을 위해 겨울철에는 밀폐를 하게 되므로 돈사 및 육계사내 습기가 높아 누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해가스 제거 및 습기 제거를 위해 최소 환기 지속 실시
- 축사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 사전 및 수시 점검으로 문제점 신속 해결
- 유사시 축사용 고압세척기 등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의 비치와 열풍기나 온풍기 상단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 소화기는 축사에서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사용요령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사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정 1,000호 돌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해 12월 21일 가축사육단계에서 1,000번째로 HACCP 농장을 추가 지정했다.

제1,000호 HACCP 지정 농장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소재한 낙원농장으로 육계 128,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낙원농장은 지난해 9월부터 HACCP을 준비했으며, 친환경축산물인증과 더불어 HACCP 지정으로 소비자에 대한 안전 축산물 공급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준원은 2006년 11월 돼지를 시작으로, 소는 2007년 9월, 닭은 2008년 5월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정업무를 시작하여 2007년 2월 13일자로 우리밀농장(돼지)을 사육단계 HACCP 1호로 지정한 이후 현재 돼지농장 365농가, 한우 311, 젓소 152 농가를 지정했으며, 닭은 육계 82농가, 산란계 116농가를 지정했다.

국립진주산업대와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국립진주산업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립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와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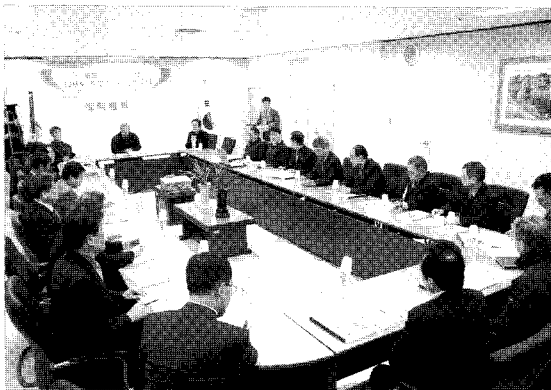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교환한 양

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HACCP에 관한 교육관련 업무 협조, ▲기타 상호협약에 의해 결정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로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전문적인 축산위생관련 기술연구는 물론, 올해로 개교 100주년의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진주산업대학과의 지속적인 정보와 업무 교류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9년 기관평가 및 2010년 경영혁신전략 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해 12월 29일 도본부장·사무국장 등 소속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기관평가 및

2010년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에도 전 임직원이 근면·성실하게 맡은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생산성과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며, "경인년 새해에도 양축농가와 국민을 위해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에 앞장서는 봉사자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에 이어 산하기관평가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과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2009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에는 전북도본부가 영예를 안았으며, 생산성향상부문에는 충남도본부가, 고객감동경영부문에는 전남도본부가, 고품질·실시간 질병예찰부문에는 경북도본부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방역본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직원 4명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방역·위생·검역사업 등 방역본부 발전에 기여한 14명에게 본부장상을 수여했으며, 불우직원·이웃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어 2010년 경영혁신전략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목표달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역본부는 2010년도 비전을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 기관'으로 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해서 빠르고(Speed), 정확하며(Sure), 특별한(Special)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목표를 사업의 고품질화, 고객 섬김, 경영선진화로 삼고 예방 위주의 사업활동과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경영효율화를 통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